

서민 주거불안 해소 중재역할 빛났다

전주시,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임차인들 분양가격 결정 과정서

전주시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분양 전환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임대주택 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양가격 갈등을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해소했다.

전주시는 지난 2009년 준공된 덕진구 A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 전주시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공공주택은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에 따른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어온 곳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이 아파트는 세대별 분양계약 체결이 원활히 진행되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총 601세대 중 495세대(82%)가 분양전환을 완료했으며, 16세대는 현재 분양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90세대는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거주키로 했다.

특히 이번 분양전환 분쟁조정은 지난 2015년 국토부, LH공사, 전북개발공사, KB국민은행 등과의 업무분담을 통해 길거리에 나왔을 위기에 놓

였던 효성임대주택 3개 단지 입주민들을 보호한 데 이어 서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15년 상반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합의한 A아파트는 감정평가를 통해 임대사업자가 1억5천만원을 분양가격으로 제시했으나, 임차인들은 1억3500만원으로 분양해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시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여러 차례 간담회와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임차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하자세대 점검과 하자진단 실시 등 문제점을 파악해왔다.

또한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담당 공무원을 현장에 상주토록 하는 등 대책 마련에 힘쓰는 한편, 임대사업자를 수차례 방문해 임차인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조정에 힘써왔다.

그 결과, 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한옥마을에서 FIFA U-20 홍보활동

최근 전주시한옥마을 일원에서 FIFA U-20 월드컵 공식 마스코트인 '차오리미'와 전주시 대학생 홍보 서포터즈와 함께 대회 개최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지속적인 조정·권고를 통해 지난해 5월 임차인들의 최종 공청회를 통해 분양가격을 세대당 500만원씩 낮추고, 공용부분 17개소를 처리해줄 것으로 요구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편 시는 서민 주거불안 해소와 주거복지강화를 위해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주거복지정책팀과 사회주택팀, 공공임대주택팀, 해피하우스팀 등으로 이뤄진 주거복지과를 신설한 바 있다.

/김영재기자

전주시, 임신부터 양육까지 지원 확대

전주시가 올해 임신부터 양육까지 지원하는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주시보건소에 따르면 올해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 좋은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와 위생관리, 모유수유지도, 신생아돌보기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보건소는 그간 일률적이었던 지원의 형태를 벗어나 올해부터는 출

산유형별로 서비스 기간을 다양화하고 다산 장려를 위해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는 서비스 제공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대상자의 경우 단태아일 경우 자녀수에 무관하게 10일간 서비스가 제공됐으나, 올해는 출산순위에 따라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20일로 늘리기로 했다.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기간을 다양화했다.

기본 지원 대상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으로,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수 및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에 따라 선정된다.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출산가정에서는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된다.

지원서류는 신청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출산예정일 증빙서류(산모 수첩,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산모 신분증이며, 산모 또는 가족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전주시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제공기관은 관내 9개소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보건소 홈페이지(<http://health.jeonju.go.kr>)를 참고하거나, 보건소 모자건강팀(063-281-6284)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재기자

서부신시가지,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전주시가 서부신시가지 중심부에 걷기 좋은 명품 보행자 전용도로를 조성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한 홍산라이브 광장과 전주비보이 광장을 중심으로 연결된 보행자 전용도로(녹도)를 올 연말까지 전면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되는 구간은 홍산라이브 광장과 전주비보이광장광장 중심 십자형으로 연결된 보행자전용도로(폭 6~10m, 총 길이=898m, 면적=8,342㎡)로, 시는 설계를 거쳐 오는 4월 착공에 들어가 연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 2008년 6월에 준공된 전주시부

신시가지는 그동안 상가 건축이 잇따르고 차량진입과 쓰레기 적치 등으로 인해 보행자전용도로가 파손되고 가로수가 고사하면서 미관을 저해시키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시는 녹도를 친환경 포장재로 교체하고, 배수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 수목 식재 등을 통해 걷고 싶은 서부권 중심상업지역의 특화거리로 조성하기로 했다.

/김영재기자

송천동 게이트볼 전용구장 개·보수 공사 추진

전주시민들의 여가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지난 20여 년간 큰 보탬을 주고 있는 송천동 게이트볼 전용구장에 대한 개·보수 공사가 추진된다.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내년 6월까지 국비 10억원 등 총 20억원을 투입해 송천동 어린이회관 앞에 위치한 게이트볼 전용구장의 구조보강 등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2001년 지어진 송천동 게이트볼 전용구장은 총 면적 5700㎡, 경기장 면적 3,586㎡로 총 8개 면의 구장이 운영 중이지만, 시설물의 노후화로 시설 보수가 시급했다.

이에 따라, 시는 FEB구조 골조를 보강하고, 지붕·벽면 관널과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공사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시는 게이트볼 개·보수 공사를 위해 다음 달까지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는 동시에, 게이트볼 협회 등 시설 이용객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설계용역 등 공사에 필요한 사전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영재기자

설 명절 연휴 전북도내 곳곳 크고 작은 사건사고로 얼룩

올 설 명절 연휴에 도내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이어졌다.

설날 당일인 지난 28일 오후 1시 50분께 부안군 동진면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112km 지점에서는 승용차 6대가 연달아 부딪혀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같은시간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115km 지점에서도 차량 5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다.

계 익산시 신동의 한 주택가에 빈 집을 찾아 침입해 500만원 상당의 귀금품을 훔쳤다.

그러나 나가려던 순간 집주인 이모씨(34)등 2명이 집으로 들어와 제압당하며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설 명절 연휴 도중 가장 충격적인 사고는 30일에 발생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30일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주차된 아내의

부안 동진 서해안 고속도로 차량 여러대 추돌 익산 왕궁 호남고속도로서 링컨MKZ 승용차 화재 아내 포르쉐 차량에 불지르고 도주한 30대 검거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화재 사건도 끊이지 않았다.

같은날인 28일 오전 3시 35분께 익산시 왕궁면 호남면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86km 지점에서 황모씨(52)가 몰던 링컨 MKZ 승용차량에서 불이 나 차량을 모두 전소시키고 4,2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다행히 불이 난 직후 차에 탑승하던 황씨가 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28일 오전 10시 10분께 익산 신동 소재의 한 카센터에서는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건물 절반을 태우는 화재사고가 났다.

빈집을 노리고 절도를 하려다 돌아온 주인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검거된 무죄자도 있었다.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변변한 직업 없이 공사장을 전전하던 송모씨(39)는 28일 오후 7시 35분

포르쉐 차량에 불을지르고 도주한 혐의(재물손괴 및 방화)로 배모씨(38)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께 익산시 소재의 주택에서 아내와 딸따름을 하던 도중 아내의 차량옆을 가지고나가 근처에 주차돼있던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충남에서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배씨는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며 잦은 말다툼을 벌였고, 이날도 같은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휴기간 중 전북지역에서 5대 강력범죄는 총 71건이 발생하며 전년 설연휴기간에 비해 약 20건 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근 기자

필로폰 판매 사회복무요원, 항소심에서도 징역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30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약을 판 혐의(마약판매)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박모(2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5년 11월 초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 "차카운 있음니다"라며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올린 뒤 설계용역 등 공사에 필요한 사전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지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한 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약 범죄는 해악이 큰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